



조계종은 4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월호 1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300여 대종이 모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다. 사진은 참석 대종이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보듬고 치유하며 위로

## 불교계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 잇달아

세월호 참사가 1주기를 맞았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슬퍼지지 추모 기간에는 하늘도 자주 울었다. 전국 사찰에서부터 진도 팽목항 현까지 법회, 템플스테이 등 추모행사와 세미나가 개최됐다. 불교계는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시행령을 새로 제정할 것 등 현안에 대한 촉구를 비롯해 생명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기도 했다.

### “생명 가치가 우선인 사회위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수습을 기원하는 추모법회를 4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계종 종단 교역자 스님들 등 300여 대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대종 스님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헌화와 분향에 이어 추도사와 추모사, 호소문 발표, 천도의식 등으로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들이 사바세계에서 겪은 아픔과 분노를 모두 내려놓고, 행복한 세상에서 왕생하길 기원한다”며 “참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남아있는 우리들이 잊지 않고 바뀌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명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지만 실종자 9명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며 “그간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한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 밖에 없다. 정부는 일선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을 대표해 스텝별조사위를 특별법 취지에 맞게 시행할 것 스세월호 인양을 조속히 개시, 완수할 것 스세월호 문제 마무리까지 둔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것을 그만 둘 것 등을 요구했다.

세월호 실종자를 대표해 나선 허홍환 씨(허다운 학생 아버지)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3일 동안 내린 비는 세월호 304명의 피와 눈물”이라며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세월호 인양을 발표해 아직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불교,安心的 역할자가 돼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되짚고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우리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4월 15일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세월호 1주기 추모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불교 측 발제자로 나선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세월호의 윤리학과 불교의 역할’ 제하의 논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며 불교와 종교 사

회와 상치받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포용하는 안심(安心)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윤리적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근현대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 안에서 형성된 결과물들이 더 이상 삶의 지향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세월호의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기반한 배려윤리와 연결된다”면서 “종교계는 종교성을 기반으로 공감의 지속과 함께 합리적이고 총체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치받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포용하는 안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강렬한 고통은 말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다”면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 자체로 위안을 줄 수 있다. 가능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종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조계종 14일 추모법회 개최

### 3대 종교 사회적 역할 논의

### 팽목항서는 법회·템플스테이

### 위로하고 보듬고

진도 팽목항에서는 금강 스님(해남 미항사 주지)과 법일 스님 등 진도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매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 팽목항 법당에서 세월호 인양, 희생자 극락왕생, 실종자 수습 등을 발원하는 기도가 진행됐다.

또한 조계종은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등 100여명의 복지기관 종사자와 조계종지행봉사단 소속 자원봉사자 50여명, 진도불교사암연합회, 전라지역 6개 교구본사 스님과 신도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세월호 1주기 맞아 아픈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의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안산시와 인접한 용인 법륜사에서는 4월 11일 ‘희망으로 피어나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진도 팽목항 법당을 열고 실종자의 귀환을 염원하며 릴레이 기도에도 동참하고 있는 해남 미항사와 주지 금강 스님도 위로와 추모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으며, 진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쌍계사는 ‘우리 마음의 힐링’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승려사인협회는 4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시 낭송회’를 열고 시심(詩心)으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다. 신성민·노덕현 기자

### 목 놓ча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며  
청하 스님

갔느냐  
아직 풀꽃 한 송이도 피워보지 못한  
그런 눈빛, 그런 얼굴로  
영 영 너희들은 떠나간 것이다.

4월의 모래밭 위에  
한없이 쓰고 또 쓰며  
목 놓아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이야.

어디서나 발목을 적시는  
너희들의 울음을 우는 바다  
그 바다, 그 넓은 바다 앞에  
너희들을 잃고 비틀대는 우리는  
이제 무엇이 되어야겠느냐.

달도 별도 없는  
너희들의 밤하늘을 보면  
세씩 하나 나비 한 마리도 없는  
너희들의 봄을 생각하면  
아 가슴에서 울적울적 치솟는  
이 뜨거운 불덩이야.

그러나 깨달았다.  
너희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 것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우리는 그리고 이 나라는  
모두가 손발이 없는 불국였다든 것을.

이 부끄러운 몸이  
너희들을 향해 가는 손발이 생길 때까지  
지금 앞을 막고 있는 커다란 바위들에  
4월 16일을 써지고 또 써져  
마침내는 흩어 되게 하리라  
어딘가 지켜보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



승려사인협회는 4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세월호 1주기 시낭송회를 열고 시심으로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다.



팽목항에서 추모도 이어졌다. 사진은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 등이 팽목항에서 추모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금강스님 페이스북 김우리>



4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추모법회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등 3대 종교단체는 4월 15일 세미나를 열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논의했다.




## 서울시와 함께하는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 2015 서울 템플스테이 워크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14일간 즐기는 템플스테이

체험기간 | 5월 1일(금) ~ 5월 14일(목) 14일간

예약기간 | 4월 17일(금) 11:00 ~ 5월 12일(화) 17:00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선착순 10,000명

참가비 | 1박2일 체험 10,000원 / 당일 체험 5,000원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를 참조하세요**

써프라이징!  
하나,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드려요  
둘,  
해인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토크콘서트]  
무료 참가 기회